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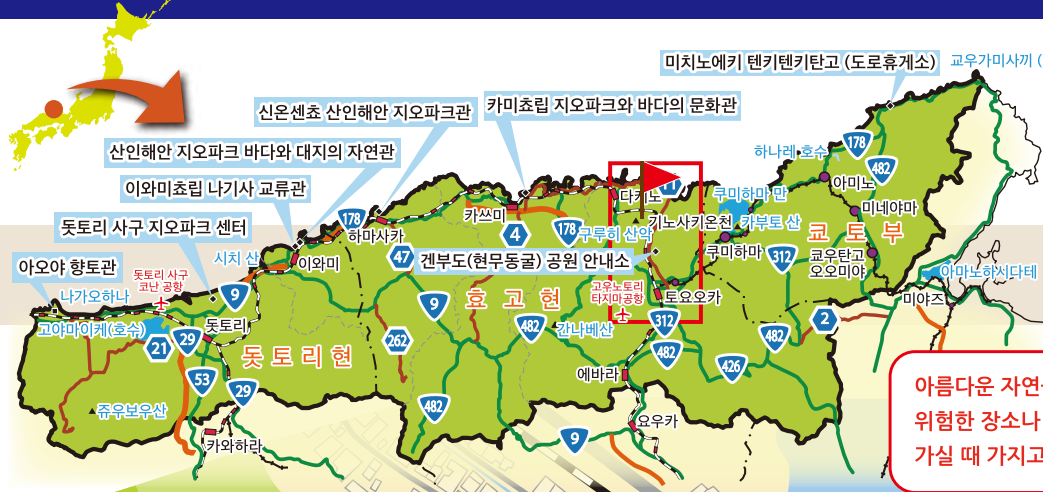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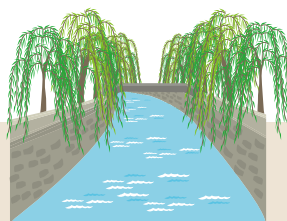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an'in Kaigan
UNESCO
Global Geopark

저습지대에 발달한 유서깊은 온천 마을

키노사키 온천 코스



산인 해안 지오파크 산책 모델 코스

초판 : 2013년 1월 29일
최종개정일 : 2016년 3월 31일

마루야마 강 하구의 저습지대이자 내륙 깊숙이 접해 있는 오오타니 강 하구. 키노사키 온천은 이 하구를 메운 모래 흙 위에 발달된 온천으로, 헤이안 시대부터 황새가 상처를 치료한다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는 온천지입니다. 현무암을 쌓아 만든 고수부지와 버드나무가 아름다운 오오타니 강, 3층의 목조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 관광객들과 현지 사람들이 모이는 일곱 곳의 공공 목욕탕. 이 아름다운 풍경은 지역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퀴즈를 찾아봅시다!

키노사키 마을에 있는 벌, 쥐, 도마뱀의 상징물이 키야마치 골목에 있습니다. 정답은... 「키야마치 골목의 가게」에 계신분들에게 여쭙습니다!



[키노사키 온천의 수질]

나트륨, 칼슘-염화물 (상대적으로 낮은 침투압이며, 중성, 섭씨 42도 이상의 고온온천)

[온천의 주요 효능]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오십견, 운동 후의 마비, 경직된 관절, 타박상, 뼈였을 때, 만성 소화기병, 치질, 냉증, 병후 회복기, 피로회복, 건강증진, 베인 상처, 화상, 만성피부병, 허약아동, 만성부인병 등

※온천자원을 지키며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키노사키 온천에서는 집중 배탕관리방식으로 관리하여, 각 숙박업소와 공공 욕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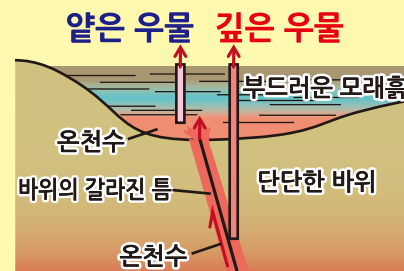
기본 코스

- 출발** * 시간은 도보
- JR 키노사키 온센역 10분 → 약300m
 - ①오오타니 강 고수부지 10분 → 약300m
 - ②히가시야마 공원 10분 → 약300m
 - ③지진 피해를 버텨낸 공간 3분 → 약100m
 - ④토겐스이(지하수) 3분 → 약100m
 - ⑤이치노유(온천) 5분 → 약150m
 - ⑥키야마치 골목과 히부세카베 (일종의 방화벽) 12분 → 약400m
 - ⑦온센지(사원) 15분 → 약500m
 - ⑧키노사키 밀집세공 전승관 8분 → 약200m
 - ⑨키노사키 문예관 8분 → 약200m
 - ⑩벤텐공원 10분 → 약300m
 - JR키노사키 온센역
- 총 이동시간 1시간 40분
총 이동거리 약 3km



키노사키 온천의 온천수는 어디에서 오지요?

종래에는 바위 틈에서 넘쳐나 사질 층에 저장된 온천수를 퍼올려 사용했습니다만, 현재는 깊은 우물을 판 후 바위 틈에서 직접 온천수를 퍼올려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깊은 곳 (100m 전후보다 깊음) → 60도 이상의 온천수
얕은 곳 (20m 전후) → 40도 전후의 온천수

짧은 코스

- 출발** * 시간은 도보
- ①오오타니 강 고수부지 8분 → 약200m
 - ⑤이치노유(온천) 5분 → 약150m
 - ⑥키야마치 골목과 히부세카베 (일종의 방화벽) 5분 → 약150m
 - ⑧키노사키 밀집세공 전승관 8분 → 약200m
 - ⑨키노사키 문예관 8분 → 약200m
 - ⑩벤텐공원
- 총 이동시간 40분
총 이동거리 900m

자전거로 돌아보자!



추천 사이클링 코스
키노사키 온천사사우라 현무동굴 주변의 마루야마 강변은 풍부한 자연이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고저차가 그다지 없어 사이클링에 최적. 역 앞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므로, 꼭 한번 가 보세요.
(자전거 대여는 키노사키 온천관광협동조합 : 0796-32-4141로 전화 주세요)

- 범례**
- 화장실
 - 공중 목욕시설
 - 주차장
 - 족탕
 - 설명 간판
 - 발 밑 주의
 - 가시는 순서
 - 교통안전확인
 - 기본 코스
 - 절경 스팟
 - 짧은 코스
 - 보도

볼 곳이 많은 키노사키 온천

① 오오타니 강 고수부지



오오타니강을 건너는 산인 해안지오라이너

오오타니 고수부지에는 현무동굴의 현무암이 사용되었습니다. 타이쇼14년(1925년)에 발생한 호쿠탄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던 때 무너졌던 현무동굴의 현무암을 배로 운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규칙적인 갈라짐이 보이는 현무동굴의 현무암은 천연 블록으로써 가옥의 토대나 돌담 등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현무동굴은 국가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히가시야마 공원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원 정상에는 마루야마 강, 사사우라 만, 온천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키노사키에서 북쪽방면에 위치한 마루야마 강가는 산이 그대로 강에 접해 있어 평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배가 키노사키의 주요 교통기관이었습니다.

③ 지진 피해를 버텨낸 공간



타이쇼 14년(1925년)에 발생한 호쿠탄 대지진 때, 키노사키 마을에서는 많은 건물이 무너졌으며, 그때 발생한 대화재로 거의 모든 가옥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진과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도 마을 곳곳에 있습니다. 이 공간도 그 중 하나로, 화재 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원래부터 불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흙담 같은 건축재가 사용되었습니다. 화재로 없어지지 않았던 것도 본래의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④ 토겐스이(지하수)



케이안 3년(1650년)에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산기슭에 위치한 우물입니다. 키노사키는 지하에 온천이 있어 우물을 파도 온천이나 쇠냄새가 나는 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수맥이 뒷쪽의 산에 이어져 있어 온천수 등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키노사키 서부의 극락사에서 나오는 돗코수이도 산기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⑤ 이치노유(온천)



키노사키 온천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여관으로 보고, 마을 단위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이치노유는 키노사키 온천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키노사키 온천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모모야마 방식의 가부키공연장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 넓직한 대욕탕, 전세 욕탕, 암반을 깎아 만든 동굴 욕탕 등이 있습니다. 일곱 곳의 온천을 유카타를 입고 돌면서, 게임을 즐기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걷는 것도 키노사키를 즐기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⑥ 키야마치 골목과 히부세카베(일종의 방화벽)



키야마치 골목은 이벤트 등에 사용되는 「산쥬산겐 광장」과 개성 넘치는 10곳의 점포가 처마를 마주하여 만들어낸 온천거리의 새로운 명소입니다. 산쥬산겐 광장에는 「히부세카베 (일종의 방화벽)」이라 불리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쇼 14년(1925년)에 발생한 호쿠탄 대지진 때, 지진 이후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는 것을 교훈으로 지어진 방화벽을 복원한 것으로, 키노사키 온천지 부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⑦ 온센지(사원)



온센지는 텐페이 10년(738년), 키노사키 온천을 개창한 도우치 상인이 창건했다고 사원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산과 사원의 이름도 그 시절의 세이무 천황에게서 받은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지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조물인 무로마치 시대 초기에 건립된 본당 등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센지에는 온센지 유래집 등 키노사키 온천의 역사를 전하는 보물이 많이 남아 있어, 본존은 매년 4월 23일, 24일의 특별 관람 때에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⑧ 키노사키 밀집세공전승관



키노사키 전통 공예인 밀집 세공기술의 전승과 작품을 보존,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호쿠탄 대지진을 버텨낸 근세 건축물인 흙으로 된 공간을 활용한 메이지, 타이쇼, 쇼와시대 초기의 작품을 약 200점, 그리고 현재의 작품을 약40점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0796-32-0515/ 9~17시 (마지막 입장 16시 30분) / 매월 마지막 수요일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과 연말연시는 휴관 / 어른 300엔, 중고생200엔 ※단체 (20명 이상) 어른 200엔, 중고생 100엔

⑨ 키노사키 문예관



소설 『키노사키에서』를 이 곳에서 집필한 시가 나오키를 시작으로, 요사노 토타코와 요사노 아키코 부부, 시마자키 도순, 시로토리 쇼고 등 에도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키노사키와 연이 있는 문인과 서화가의 자료와 키노사키 온천의 역사관련 자료를 전시. 관내에는 그 밖에도 전통공예품인 밀집세공을 전시, 제작 체험하는 코너와 키노사키 온천관광협회의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의) 0796-32-2575/ 9~17시 (마지막 입장 16시30분) / 매월 마지막 수요일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과 연말연시는 휴관

⑩ 벤텐공원



벤텐산을 이루는 암석은, 일본해가 만들어낸 약 2천만년전 경에 분출한 화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암이 단단해서 비바람에 의한 침식에도 버텨내어 지금과 같은 산이 되었습니다. 벤텐산의 기슭이나 정상에서는 용암이 흐르던 모습이 남아있는 "유리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신사 옆에는 키누마키 공주가 건립했다고 전해지는 타이라노 모리쓰구의 공양탑이 현존해 있습니다.

지오칼럼①

저습지 마을 "키노사키"

히가시야마 공원에서 키노사키 온센역이나 마루야마 강 방면을 바라보면, 산이 강에 붙어있어 평지가 그다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도로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배가 키노사키 온천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오기가 어려웠던 키노사키는 말하자면 섬과 같다고 할 수 있어, 지금도 유시마나 모모시마와 같이 시마(섬이라는 의미)가 지명에 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오칼럼②

쥬몬시대의 키노사키

쥬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토요오카 분지는 깊은 곳이 30~40m 전후나 되는 큰 만이었다는 것을 지질 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키노사키 온센역 부근은 바닷속이었고, 벤텐산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지하에서는 바다에 생식하고 있던 조개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토요오카 분지



지오칼럼③

호쿠탄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

타이쇼 14년(1925년)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 마루야마 강하구 부근을 진원으로 하여 발생한 직하형 지진인 「호쿠탄 지진」은, 마루야마 강 유역, 특히 토요오카, 키노사키 마을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건물 붕괴와 그 후에 발생한 화재로 괴멸적 피해를 입은 키노사키 마을이었지만,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던 시절에 지진 전의 경취 있는 거리를 되찾고자 3층 목조 건물을 짓고, 방화벽을 건축하여 지진 후의 화재를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오오타니 강의 고수부지에는 현무암을 사용하여 튼튼하고 경취있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키노사키 온천 (키노사키 온천 고향 축제)

제작 : 산인 해안 지오파크 추진협의회 효고현립대학 자연·환경과학연구소 지오환경연구부문